간호행정학회지 제13권 제4호, 2007년 12월
*J Korean Acad Nurs Admin Vol.13 No.4, 516-525, December, 2007*

#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과 학습태도, 학업성취도간의 상관성

정현경[1] · 김명수[2] · 유연자[3] · 김수옥[3] · 원대영[4]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최근 4년제 대졸이상 고학력자들의 취업난이 극대화 되면서 비교적 높은 취업률을 보장하는 보건의료계열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대졸자들이 취업을 위해 다시 보건의료계열에 입학하는 이른바 '학력 U-turn 현상'이 급증하고 있어(박동민, 2007), 각급 대학들에서 보건의료계열의 경쟁률은 전체 학과 중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김종균, 2007). 간호학과의 경우 각급 의료기관들의 규모확장 및 간호등급상승을 위한 간호인력의 확충으로 인해 해마다 인원이 증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 경쟁률은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는 기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적성이나 흥미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간호학 교과목의 학습과 실제 인간을 대상으로 실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문숙, 2000; Hosoda, 2006). 간호 대학생들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과정동안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역량을 다져야 함은 주지되어져 오는 사실이다. 현재 임상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지적 융통성, 창의성, 비판적 탐구력, 자신감 있는 수행능력의 향상이며(임지영, 유일영 및 오순남, 2001), 이를 위해서는 성공적인 학업의 성취가 관건으로, 실제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업무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재희, 조현숙과 이상하, 2001). 이에 간호교육자들은 보다 입학성적이 좋은 학생을 유치하여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려 하나 일 연구에 의하면 입학성적과 간호학의 학업성취도는 관련이 없고(임지영 등, 2001), 학생의 특성에 따른 교수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최재희, 2006)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 교수-학습법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전통적으로 학습에 관계되는 변인으로는 학습자변인, 학습과제 변인, 교수 및 교사의 변인, 물리적 환경 변인 등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박경숙, 1988). 간호학은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학문에 비해서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잘 하는가가 학업의 성패를 좌우하므로(오원옥, 2002) 다른 변인보다도 학습자변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도적 학습이란 교수의 도움이 있건 없건 간에 스스로 학습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세워 적용하는 것으로 Candy(2002)의 연구(오원옥, 2002에 인용됨)에서와 같이 학습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학습태도는 주의집중정도, 학습방법, 자율학습, 학교에 대한 태도, 학업적인 자신감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으며(김철, 2003), 이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음은 여러 연구에서 규명되어 오고 있다(임정란, 2006; 정화순, 2003).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변인 중 개인 특유의 행동 및 사고의 양식으로 정리되는 성격유형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itran, Zuniga, Lafuente, Viviani, &

주요어 : 간호대학생, 성격, 학습태도, 학업성취도
1) 부산대학교 병원 간호사,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2) 울산과학대학 간호과 전임강사(교신저자 E-mail: kanosa@hanmail.net)
3) 울산과학대학 간호과 부교수, 4) 울산과학대학 간호과 교수
투고일: 2007년 11월 13일 심사완료일: 2007년 12월 12일

Mena, 2003). 성격유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로 MBTI를 이용하며, MBTI는 자신의 성격 경향성을 알려주고 성격유형의 장·단점 및 자아개발을 위해 취해야 할 점들을 제공해주므로 대부분의 성격유형 검사시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 내향성-외향성으로, 정보의 선택방법에 따라 감각형-직관형으로, 의사결정 유형에 따라 사고형-감정형으로, 마지막으로 행동양식에 따라 판단형-지각형으로 구분된다. 허선자(1995)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성향이 특정 환경에서의 개인의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성격이 학습태도에 영향을 줄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고, 최재희(2006)의 연구에서도 내향성이냐 외향성에 따라 개인의 학습 태도 및 스타일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격유형은 학습태도를 변화시키고(임정란, 2006) 나아가 궁극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향적인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는 성격이 직접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임지영 등, 2001).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내향적 성향의 학생이 외향적 성향보다, 사고형 성향이 감정형 성향보다, 판단형 성향이 인식형 성향의 학생보다 성적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허정(1991)의 연구를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도 입증되어져 오고 있다. 요약하자면, 개인의 성격유형이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쳐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성격유형 자체가 학업성취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되나 아직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명이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간호대학생의 경우 교과목은 이론과 실기로 대별되어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학업성취도를 전체적인 평점으로 활용해왔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론과 실기과목으로 세분화하여 성격유형이 특히 영향을 미치는 과목을 규명하여 성격과 학습태도 및 교과목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성격유형을 파악하고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성을 조사함으로써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태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꾀하는 전략개발에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성격유형을 파악하고,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태도 및 학업성취도를 분석하여 성격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들의 성격유형, 학습태도, 학업성취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태도, 학업성취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들의 성격 4가지 유형과 학습태도,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 대학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과 학습태도,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울산에 위치한 일 3년제 간호과에 재학중인 1학년 간호대학생 101명 중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9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을 1학년에 한정하여 실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태도는 한번 형성되면 장기적인 지속성을 가지고 변화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학습태도가 형성되는 초기에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김철, 2003), 대학 입학 시기에 자신의 특성과 전공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학습태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3년제 간호과의 교과과정상 2, 3학년은 과목별 임상실습과목과 간호이론과목으로 대별하여 학습하고 있어 학업성취도의 평가가 한정적이며, 임상실습과목의 성적은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았고 주로 실습태도나 과제물에 근거하여 평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기과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연구대상자를 1학년에 한정하였다.

### 연구 도구

● MBTI 도구

MBTI는 Jung의 심리유형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실생활에 맞도록 Briggs와 Myers가 1975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만든 광범위한 심리검사도구이며,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성격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김정택, 심혜숙 및 제석봉(1995)이 한국어판으로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한국어판 MBTI의 문항은 총 9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지는 자가채점용(GS형)과 컴퓨터채점용(GA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GA형을 사용하였다. 성격유형지표로서 외향성(Extraversion)-내향성(Intraversion): EI지표, 감각(Sensing)-직관(iNtuition): SN지표, 사고(Thinking)-감정(Feeling): TF지표, 판단(Judgement)-인식(Perception): JP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당시 본 도구의 내

적신뢰도는 EI지표가 .77, SN지표가 .81, TF 지표는 .78, JP지표가 .82로 검증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EI지표가 .75, SN지표가 .83, TF 지표는 .77, JP지표가 .80이었다.

● 학습태도

학습태도란 학습에 있어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양태'나 '자세'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김철(2003)이 곽기상(1988), 정미숙(1991)의 연구를 토대로 추출한 학습태도 검사 Ⅰ과 Ⅱ 중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았던 학습태도 검사 Ⅰ을 이용하였다. 학습태도의 하위영역은 주의집중정도를 묻는 7문항, 학습방법을 묻는 5문항, 자율학습태도 5문항, 학교에 대한 태도 3문항, 학습과 관련한 자신감 4문항으로 5가지 영역의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항에 대해 '매우 아니다' 1점, '조금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조금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김철(2003)의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95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 학업성취도

본 연구에서 1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준거를 선수과목, 이론과목, 실기과목, 기초간호학과목으로 대별하였고, 이 각각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영어, 기본간호학, 기본간호학실습, 해부학 4 과목으로 선정하였다. 영어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부터 선행되어야 하는 학습과목이며 단기간에 향상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간호대학생의 선행학습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선택하였다. 기본간호학의 경우에는 간호대학생이 접하는 첫 전공과목으로 전형적인 이론학습과목이고, 기본간호학 실습은 매시간 관련주제에 대한 실기의 수행이 이루어지며 실기시험이 연 2회 이상 치러지게 되어 실기과목을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해부학의 경우에는 간호학 전공자들이 이수해야 할 여러 기초간호학과목의 하나로 여러 가지 기초과목의 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초간호학과목의 학업성취도 지표로 선택하였다. 이들 과목은 상대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학점을 부여하였고, 95점 이상은 A+, 90점 이상은 A를 부여하는 식으로 평가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학점이 A+인 경우에는 8점, A 는 7점, B+는 6점, B는 5점, C+는 4점, C는 3점, D+는 2점, D는 1점, F는 0점을 부여하여 연구에 적용하였다.

●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전공에 대한 감정적이고 인지적인 측면을 모두 내포하며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점, '만족하지 않는다' 2점, '보통이다' 3점, '만족한다' 4점, '매우 만족한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측정결과 불만족에 해당하는 응답이 없어서, 분석에서는 '보통이다' 1점, '만족한다' 2점, '매우 만족한다'를 3점으로 부여하였다.

###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7년 4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MBTI를 이용한 성격유형검사는 1학년 입학 후 학생들의 성향파악을 위해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MBTI가 비진단검사이며 결과가 좋고 나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6가지의 유형의 구분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를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그 후 학습태도의 측정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1학년 각 학생을 대상으로 익명성을 보장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MBTI와 연계하여 각 학생별로 ID를 부여한 후 자료를 입력하였다. 학업성취도는 1학년 1학기 성적을 토대로 하였으며 역시 학생별로 ID를 부여하여 학점당 해당성적을 부여하였다.

###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격유형은 실수와 백분율,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성격유형, 학습태도,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확인하였다. 성격유형 검사결과로 나온 비연속점수는 연속점수로 환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내향적(I), 감각형(S), 사고형(T), 판단형(J)의 경우 (100-선호점수)로, 외향적(E), 직관형(N), 감정형(T), 인식형(P)는 (100+선호점수)로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격유형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총 91명의 대상자 중 남자가 7명으로 7.7%였고, 여자가 84명으로 대부분인 92.3%를 차지하였다. 전공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가 62명으로 68.1%를 차지하여 응답자의 반수이상을 차지하였고, 매우만족이 21명, 보통이 8명의 순으로 전공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격유형을 살펴보면 내향적인 성향은 91명 중 43명이었고, 외

향적인 성향은 48명으로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였으나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학생이 조금 더 많았다. 감각적인 성향은 75명으로 82.4%를 차지하여, 직관적인 성향에 비해 많았다. 사고형 학생은 51명으로 56.0%를 차지하여 감정적인 학생보다 많았다. 마지막으로 판단형 학생은 52명으로 인식형 학생보다 13명이 많은 57.1%를 차지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성격유형 (n=91)

| 범주 | 특성 | 빈도(백분율) |
|---|---|---|
| 성별 | 남 | 7( 7.7) |
| | 여 | 84(92.3) |
| 전공 만족도 | 매우 만족 | 21(23.1) |
| | 만족 | 62(68.1) |
| | 보통 | 8( 8.8) |
| 성격유형 | I(내향적) | 43(47.3) |
| | E(외향적) | 48(52.7) |
| | S(감각적) | 75(82.4) |
| | N(직관적) | 16(17.6) |
| | T(사고형) | 51(56.0) |
| | F(감정형) | 40(44.0) |
| | J(판단형) | 52(57.1) |
| | P(인식형) | 39(42.9) |

## 대상자의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

연구 대상자들의 학습태도의 평균평점과 학업성취도는 <표 2>와 같다. 학습태도에 대한 평균평점은 문항별로 1점에서 5점까지 도출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주의집중의 경우 문항의 평균이 최저 1.71점에서 최고 4.71점까지였고, 자율학습의 경우 2.20점에서 4.40점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대한 태도의 평균평점이 4.26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습방법 3.33점, 자율학습 3.26점의 순이었다. 학업성취도의 범위를 살펴보면 기본간호학의 평균점수가 6.10점으로 가장 높았고, 영어의 평균학점이 4.40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2> 대상자의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 (n=91)

| | | M±SD | Actual range | Potential range |
|---|---|---|---|---|
| 학습태도 | 주의집중(7) | 3.16± .54 | 1.71-4.71 | 1-5 |
| | 학습방법(5) | 3.33± .56 | 2.00-4.60 | 1-5 |
| | 자율학습(5) | 3.26± .54 | 2.20-4.40 | 1-5 |
| | 학교에 대한 태도(3) | 4.26± .53 | 1.67-5.00 | 1-5 |
| | 학업적 자신감(4) | 2.77± .58 | 1.50-4.25 | 1-5 |
| 학업성취도 | 영어 | 4.40±2.08 | 0-8 | 0-8 |
| | 기본간호학 | 6.10±1.43 | 1-8 | 0-8 |
| | 기본간호학 실습 | 6.09±1.42 | 1-8 | 0-8 |
| | 해부학 | 5.18±2.07 | 0-8 | 0-8 |

<표 3> 일반적 특성 및 성격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 (n=91)

| | | 영어 | 기본간호학 | 기본간호학 실습 | 해부학 |
|---|---|---|---|---|---|
| 성별 | 남 | 4.00±1.00 | 5.71±1.11 | 5.57±1.27 | 4.86±1.21 |
| | 여 | 4.43±2.14 | 6.13±1.45 | 6.13±1.43 | 5.20±2.13 |
| | t(p) | .965(.355) | .739(.462) | 1.002(.319) | .421(.675) |
| 전공만족도 | 매우만족 | 4.24±1.84 | 6.24±1.48 | 5.95±1.24 | 5.24±1.95 |
| | 만족 | 4.44±2.18 | 6.03±1.47 | 6.16±1.50 | 5.00±2.18 |
| | 보통 | 4.50±2.07 | 6.25±1.04 | 5.88±1.36 | 6.38±1.06 |
| | F(p) | .080(.923) | .208(.813) | .264(.768) | 1.59(.210) |
| 성격유형 | I(내향적) | 4.35±2.10 | 5.98±1.46 | 6.19±1.35 | 4.95±2.18 |
| | E(외향적) | 4.44±2.07 | 6.21±1.41 | 6.00±1.49 | 5.38±1.97 |
| | t(p) | -.202(.840) | -.769(.444) | .622(.535) | -.967(.336) |
| | S(감각적) | 4.37±2.11 | 6.07±1.47 | 6.08±1.34 | 5.12±1.99 |
| | N(직관적) | 4.50±1.97 | 6.25±1.44 | 6.13±1.78 | 5.44±2.50 |
| | t(p) | -.220(.826) | -.463(.644) | -.115(.909) | -.554(.581) |
| | T(사고형) | 3.92±2.13 | 5.92±1.56 | 5.98±1.33 | 5.02±2.15 |
| | F(감정형) | 5.00±1.85 | 6.33±1.23 | 6.23±1.53 | 5.38±1.98 |
| | t(p) | -2.53(.013)* | -1.34(.183) | -.814(.418) | -.810(.420) |
| | J(판단형) | 4.29±2.10 | 5.96±1.55 | 6.10±1.56 | 5.10±2.14 |
| | P(인식형) | 4.54±2.06 | 6.28±1.26 | 6.08±1.22 | 5.28±2.00 |
| | t(p) | -.566(.573) | -1.059(.293) | .064(.949) | -.421(.675) |

* $p < .05$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격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와 학습태도

성별, 전공만족도, 성격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우선 성별에 따라서는 영어, 기본간호학, 기본간호학실습, 해부학 각 과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공만족도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의 경우 내향적인(I)사람은 영어가 4.35점이고 외향적인(E) 사람은 4.44점이었으나(t=-.202, p=.840)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사고형(T) 학생은 3.92점이고, 감정형(F)학생은 5.0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53, p=.013).

성별, 전공만족도, 성격유형에 따라 학습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부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그러나 감각적 성향의 학생이 학교에 대한 태도가 12.96점이고, 직관적 성향의 학생이 11.94점으로 감각적 성향의 학생이 학교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t=2.407, p=.018). 또 사고형 학생(11.78점)은 감정형 학생(10.57점)보다 유의하게 학업적 자신감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t=2.212, p=.023).

### 성격유형, 학습태도,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

우선 일반적인 특성과 성격 및 학습태도의 상관성을 보면, 성격유형 중 내·외향성과 전공만족도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217, p<.05)가 나타나 내적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표 5>. 또한 전공만족도와 학교에 대한 태도는 음의 상관관계(r=-.241, p<.05)를 보여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과 학습태도 및 학업성취도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감각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학교에 대한 태도는 유의하게 긍정적이었고(r=-.213, p<.05), 사고-감정형 성향과 학업적 자신감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208, p<.05). 즉, 감각적 성향이 강할수록 학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사고형 성향이 강할수록 학업적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방법이 좋을수록 영어(r=.315, p<.01), 기본간호학(r=.269, p<.05), 해부학의 성취도(r=.348, p<.01)는 유의하게 높아지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율학습을 잘할수록 영어(r=.220, p<.01), 기본간호학실습(r=.264, p<.01), 해부학의 학업성취도(r=.290, p<.05)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와는 유의한 상관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성격유형을 조사하고, 성격유형과 학습태도,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성격에 기인한 특성을 이해하여 성격적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초를 제공하고자 수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성향은 외향적인 성향이 52.7%, 내향적인 성향이 47.3%였고, 직관형(17.6%)보다는 감각적인 성향(82.4%)이, 감정형(44%)보다는 사고형(56%)이, 인식형(42.9%)

**<표 4> 일반적 특성 및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태도의 차이** (n=91)

| | | 주의집중 | 학습방법 | 자율학습 | 학교에 대한 태도 | 학업적 자신감 |
|---|---|---|---|---|---|---|
| 성별 | 남 | 21.57±3.41 | 16.43±2.82 | 14.57±2.94 | 13.00±.58 | 10.57±2.37 |
| | 여 | 22.19±3.82 | 16.64±2.83 | 16.46±2.66 | 12.76±1.64 | 11.11±2.32 |
| | t(p) | .415(.679) | .192(.848) | 1.79(.076) | -.844(.411) | .585(.560) |
| 전공만족도 | 매우만족 | 21.86±3.95 | 16.81±3.14 | 16.29±3.08 | 13.33±1.24 | 11.43±2.13 |
| | 만족 | 22.19±3.79 | 16.50±2.74 | 16.29±2.69 | 12.71±1.62 | 10.89±2.36 |
| | 보통 | 22.50±3.59 | 17.13±2.80 | 16.63±2.07 | 11.88±1.73 | 11.50±2.56 |
| | F(p) | .099(.905) | .228(.796) | .055(.947) | 2.75(.069) | .576(.564) |
| 성격유형 | I(내향적) | 22.14±3.78 | 16.56±2.50 | 16.42±2.57 | 12.67±1.39 | 10.93±2.47 |
| | E(외향적) | 22.15±3.81 | 16.69±3.10 | 16.23±2.86 | 12.88±1.75 | 11.19±2.19 |
| | t(p) | -.008(.994) | -.218(.828) | .331(.742) | -.601(.549) | -.526(.600) |
| | S(감각적) | 22.17±3.77 | 16.36±2.74 | 16.23±2.81 | 12.96±1.34 | 11.09±2.44 |
| | N(직관적) | 22.00±3.92 | 17.88±2.92 | 16.75±2.24 | 11.94±1.75 | 10.94±1.69 |
| | t(p) | .166(.869) | -1.986(.050) | -.698(.487) | 2.407(.018)* | .243(809) |
| | T(사고형) | 22.39±3.74 | 16.49±2.43 | 16.27±2.95 | 12.78±1.76 | 11.78±2.35 |
| | F(감정형) | 21.83±3.84 | 16.80±3.27 | 16.38±2.43 | 12.78±1.35 | 10.57±2.21 |
| | t(p) | .709(.480) | -.519(.605) | -.174(.862) | .028(.978) | 2.212(.023)* |
| | J(판단형) | 22.27±3.75 | 16.38±2.71 | 16.54±2.96 | 12.75±1.44 | 11.06±2.40 |
| | P(인식형) | 21.97±3.86 | 16.95±2.96 | 16.03±2.36 | 12.82±1.78 | 11.08±2.23 |
| | t(p) | -.945(.347) | -.945(.347) | .920(.360) | -.209(.835) | -.039(.969) |

* p < .05

보다는 판단형(57.1%)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임지영 등 (2001)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향적인 학생이 많았던 것과는 유사하지만, 의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향적인 성향의 학생이 68.4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던 결과(김선, 1999)와는 대조적이었다. 또 간호대학생들은 감각적이고 판단형의 성향을 높게 나타내었는데, 이는 치의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감각-판단형의 성향이 높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Morris, 2000). 임지영 등(2001)의 연구에서는 감각적 성향을 가진 간호대학생들이 71%이었고, 같은 대상자는 아니지만 김은주, 임지영 및 이화인(2005)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의 90%가 감각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간호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다른 학문 전공자에 비해 감각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간호사의 업무가 독창적이고 상상력을 요구한다기 보다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수행하므로 간호사로 오래 근무할수록 감각적 성향이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일반적 특성 및 성격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격유형에 따라 기본간호학, 기본간호학실습, 해부학의 학업성취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주로 외적 세계를 지향하므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활동을 좋아하고 행동 지향적이어서 전반적인 학업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져 오고 있다(김선, 1999; 임지영 등,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론과목 뿐 아니라 특히 실기과목에서 높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오히려 내향적인 성향의 학생들에서 기본간호학 실습점수가 높았고 이론과목인 기본간호학에서는 외향적인 성격의 학생이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BTI 유형이론을 적용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적을 비교하였을 때 내향적인 사람들의 성적이 더 높다고 보고한 연구(Anderson, 1998)와는 차이가 있어서 단순히 내향-외향성으로는 학업성취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고형에 비해서 감정형 성향이 강한 학생이 유의하게 영어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와 논리 등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교과과정의 특성이 사고형에 적합하여 학업관계에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김성렬, 1998) 본 연구 중 영어과목에서는 이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할 때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이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기 힘들었다.

다음으로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태도의 차이 역시 거의 유의하지 않았지만, 유의했던 것으로는 감각적인 성향의 학생이 직관적인 성향의 학생보다 학교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긍정적이었고, 사고형 학생인 경우 감정형보다 학업에 대해 자신감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적 성향의 학생들은 조직적이고 구조화된 순차적인 강의를 선호하므로(김선, 김주현과 허예라, 2005) 본 연구 대상자들은 기본적인 개념부터 점차 심도있는 전문지식을 배우게 되는 간호학의 전공관련 강의와 교수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들의 학습전략은 많은 양의 학습정보를 취합하여 조직화하고 구조화하므로(Bitran et al., 2003)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사례나 문제를 먼저 제시하여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좋다(김선 등, 2005). 사고형 학생인 경우에는 객관적인 원리원칙을 중심으로 특정한 선택이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과거의 학습경험을 기초로 자신의 학습전략이나 습관에 대해서 분석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감정형 성향의 학생보다 자신감이 충만하므로 학습목표의 제시 및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 강의만으로도 학업성취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성격유형, 학습태도,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감각적 성향이 강할수록 학습태도의 하위영역인 학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사고형 성향이 강할수록 학업적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중영역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에 대한 태도와 학업적 자신감이 긍정적이었던 사실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감각적-사고형 성향의 학생은 다른 영역의 학습태도에서도 긍정적인 성향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학업성취도도 유의하게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되어진다. 학습태도의 하위 영역 중 학습방법이 긍정적일수록 영어, 기본간호학, 해부학의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아졌으나, 실기과목인 기본간호학실습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율학습정도에 따라서는 기본간호학을 제외한 영어, 기본간호학 실습, 해부학의 학업성취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중한 성향의 학생일수록 자신의 학력에 대한 지각이 증가하고 자율적인 학습이 증가하여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성격유형과 자율학습태도, 학업성취도간의 관련성을 규명한 Noftle & Robins(2007)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로써, 성격유형 자체가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성격유형이 학습태도에 영향을 주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과목의 유형에 따른 교수-학습법을 제시하자면, 우선 기본간호학과 같은 간호학 이론과목의 경우 감각형-사고형 성향이 강한 간호대학생을 위해서 명확한 학습목표의 제시를 시작으로 한 명료한 강의식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김선 등, 2005). 왜냐면 이들은 구체적인 순차적 학습스타일을 가지기 때문이다(Harasym, Leong, Juschka, Lucier, & Lorscheider, 1996). 따라서 단원에 따라 구체성을 강조하고,

자발적 동기화를 강화할 수 있는 소그룹활동, 발표식 수업, 문제중심학습 등의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실기과목인 기본간호학 실습 평가는 교수와 학생간의 일대일 대면 시간이므로 긴장감 등이 원인이 되어 시험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변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것처럼 학습방법이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학업성취도와 관련성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실기과목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학습방법의 유지가 아닌 실제 행동으로의 학습방법 변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실기과목 범주에 속하였던 기본간호학 실습과목은 임상실습을 하기 전 유일하게 간호실무를 경험하는 교과목으로 이론과 실기가 통합되어 이루어져야 하고(유재희 등, 2001), 주어진 학점 및 교육시간등의 제한으로 교과내용을 충분히 학습하기 전에 임상실습의 단계로 나아가므로(유문숙, 2000), 무엇보다 자율적인 실기의 학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에 실기과목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으로 실습실의 개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자발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법을 적용하는 것(유문숙, 2000)이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셋째, Harasym et al.(1996)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과 학습스타일은 해부학이나 생리학 등의 기초간호학과목에서의 학업성취도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할 때, 간호대학생들의 성격유형은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보다는 학습태도에 영향을 주어 학업성취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맞는 다양한 교수-학습법의 적용을 통하여 학습태도 및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개인의 성격유형,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그들의 개별적 특성에 근거한 교수-학습법을 개발하는데 기초를 제공하고자 수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울산의 1개 3년제 간호과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91명으로 자료수집은 2007년 4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였다. 연구도구는 MBTI 성격유형검사, 학습태도 및 학생들의 과목별 평점을 이용하였고, 서술적 통계방법과 t-test와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은 외향적인 성향이 52.7%, 내향적인 성향이 47.3%였고, 직관형(17.6%)보다는 감각적인 성향(82.4%)이, 감정형(44%)보다는 사고형(56%)이, 인식형(42.9%)보다는 판단형(57.1%)이 더 많았다.
- 성별, 전공만족도, 성격유형에 따라 학습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부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감각적 성향의 학생이 학교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t=2.407, p=.018). 또, 사고형 학생은 감정형 학생보다 유의하게 학업적 자신감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t=2.212, p=.023).
- 성격유형, 학습태도, 학업성취도간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우선 성격유형과 학습태도 부분은 감각적 성향과 학교에 대한 태도, 사고형 성향과 학업적 자신감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 부분은 학습방법과 영어, 기본간호학, 해부학의 학업성취도, 자율학습과 영어, 기본간호학 실습, 해부학의 학업성취도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간에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었으나 성격유형이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간접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에 성격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학습법의 개발 등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일개 대학에서 시행되었으므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1학년으로 한정하여 실시하였으나, 다양한 학년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를 토대로 간호학과 학생들의 학습태도 및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법 개발 및 평가연구의 시행을 제언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곽기상 (1988).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학습에 대한 태도와 그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김 선 (1999). 의과대학생의 성격과 학업만족도 및 학업성취도간의 관련성 연구, *한국의학교육, 11*(2), 271-284.

김 선, 김주현, 허예라 (2005). 의과대학생 성격과 학업성취도 비교를 통한 교육방법, *한국의학교육, 17*(2), 107-119.

김성렬 (1998). 학교의 학습조직화를 위한 연구, *교육발전 17*(1), 87-106.

김은주, 임지영, 이화인 (2005). 간호사의 MBTI 성격유형과 학습조직화와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11*(3), 265-273.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역) (1995). *MBTI 개발과 활용.*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김종균. (2007. 9. 22). 전문대 수시 2학기 모집 지난해보다 경쟁률 상승. 부산일보. 2.

김 철 (2003). *기독교 묵상이 대학생들의 주의력집중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박경숙 (1988). 감각통합기능, 학력, 정서장애, 사회성간의 관계, *한국 교육, 15*(1), 93-115.

박동민. (2007. 2. 1). 박사님이 전문대에 다시 입학하는 까닭. 매일경제신문. 8.

오원옥 (2002).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영향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2*(5), 684-693.

유문숙 (2000). 기본간호학 실습교과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기본간호학회지, 7*(1), 60-70.

유재희, 조현숙, 이상하 (2001). 기본간호에 대한 임상실습 교육이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간호행정학회지, 8*(1), 45-52.

임정란 (2006). *남녀고등학생의 귀인성향 및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춘천.

임지영, 유일영, 오순남 (2001). 일 대학교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입학성적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1*(5), 835-845.

정미숙 (1991). *정의적 변인과 학업성취의 관계분석*.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경산.

정화순 (2003). *가정환경과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순천.

최재희 (2006). *중학생의 직업적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전략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Holland 의 직업적 성격유형을 중심으로* 서울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허선자 (1995). *청소년의 심리유형에 따른 직업흥미와 지각된 유능감*.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부산.

허 정 (1991). *고등학교 행정의 실적 평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Anderson, J. K. (1998). Orientation with style matching teaching/learning style. *J Nurses Staff Dev, 14*(4), 192-197.

Bitran, M., Zuniga, D., Lafuente, M., Viviani, P., & Mena, B. (2003). Psychological types and learning styles of students entering medical school at the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Chile. *Rev Med Chil, 131*(9), 1067-1078.

Candy, P. (1991). *Self-direction for lifelong learning: A comprehensive guide to theory and practice*. San Francisco: Jossey-Bass.

Harasym, P. H., Leong, E. J., Juschka, B. B., Lucier, G. E., & Lorscheider, F. L. (1996). Relationship between Myers-Briggs type indicator and gregorc style delineator. *Percept Mot Skills, 82*(3), 1203-1210.

Hosoda, Y. (2006).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diagnostic inventory for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 Adv Nurs, 56*(5), 480-490.

Morris, D. O. (2000). Personality types of dental school applicants. *Eur J Dent Educ, 4*(3), 100-107.

Noftle, E. E., & Robins, R. W. (2007). Personality predictors of academic outcomes: Big five correlates of GPA and SAT scores. *J Pers Soc Psychol, 93*(1), 116-130.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Jung, Hyun-Kyeong[1] · Kim, Myoung Soo[2] · Yoo, Youn-Ja[3] · Kim, Soo Ok[3] · Won, Dae Young[4]

*1) Nurse, Doctoral candidate, The Graduate School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2)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Ulsan College*
*3)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Ulsan College*
*4)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Ulsan College*

**Purpose:**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and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Method:** 91 students were sampled from freshman in nursing school.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2 to October 5 2007. Analysis of the results were carried out using SPSS win 12.0 for frequency,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Result:** The result of MBTI test was that nursing students in this study showed extraversion(52.7%), sensing(82.4%), thinking(56.0%), judging(57.1%).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personality was that only feeling(F) type students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 of English than thinking(T) type students(p=.013). Learning attitudes according to personality were that sensing(S) type students had significantly positive attitude toward their college than intuition(N) type students (p=.016). And think(T) type students had significantly higher confidence of learning than feeling(F) type students. There wa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learning method and score of English, Fundamental Nursing, Anatomy($p < .05$). **Conclusions:** Diagnosing personality can differentiate student's learning attitude. It is important to develop teaching-learning strategies according to their personality, which can help them to improve their academic achievement.

Key words : Student, Nursing, Personality, Attitude, Educational statu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Myoung Soo*
*Department of Nursing, Ulsan College*
*San 160-1, Wha-jung dong, Dong-gu, Ulsan, Korea*
*Tel: 82-52-230-0737 Fax: 82-52-230-0731 E-mail: kanosa@hanmail.net*